

■ 기업 연수 '맞춤형 연극' 인기

“무대 주인공,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

“팀장은 팀원들 쫓는 게 능력이잖아 아니 보지.” “입사 후배면서 선배 제치고 승진했다고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꼬락서니하고는.”

연극 ‘원더 크리에이터’에서 최고봉 팀장과 명석한 대리, 그리고 팀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직장인들의 마음을 찔러준다.

지난 4일 연극 공연이 열린 장소는 일반 공연장이 아닌, 나주에 위치한 KT 연수원이었다. 연극을 관람한 사람들은 KT 신입사원들. 이날 공연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KT 행동 혁신 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최근 각 회사에 맞는 사례들을 접목한 맞춤형 연극이 회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극 공연은 현장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무대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게 무엇보다 큰 장점.

여기다 직원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KT는 광주에서 활동중인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대표 이행원)와 오래전부터 연수 프로그램으로 연극 공연을 진행중이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패스트 푸드점 맥도날드 점장들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극단 ‘진달래 피네’는 삼성전자와 함께 작품을 준비중이다.

기업체들은 연극 대본을 위해 CEO의 경영 철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KT와 연극 ‘원더...’ 제작

‘진달래 피네’ 삼성전자와 작품 준비...문화 체험 효과도

학과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직원들과의 만남도 주선한다.

‘원더 크리에이터’의 극본을 쓴 원광연씨 역시 KT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대본을 완성했다.

만들어진 대본은 나이, 부서, 직위 등 교육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를 준다.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경우 작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김상오·이

경진·박영진씨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배우들이 극의 중간 중간 객석으로 내려와 “내가 대리의 상황이라면” 같은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사실, 직장 생활에 바쁜 셀러리맨들이 연극 한편 감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연수 중 진행되는 연극 공연은 일부 직원들에게는 ‘첫번째 연극 관람’이라는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연출을 맡은 이행원(40)씨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약간의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결국 휴머니티와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무대 위 배우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한번쯤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극을 보고 난 신입사원 안재경(25)씨는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들이 직접 연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훨씬 잘 돼 어쩐지 감보다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이야기를 소재로한 연극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KT연수원에서 열린 ‘원더 크리에이터’는 KT와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 여성 한부모 하나 된다

내달 7일 여의도시민공원에서 한마당 행사

‘문제 있는 가정’ 또는 ‘수혜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가려진 전국의 여성 한부모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빈곤의 여성화 해소운동본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전국

여성 한부모 희망속삭임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부모네트워크 회원인 여성 한부모와 자녀 500여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기념식과 편지 공모전 시상식, 여성 한부모 뮤지컬팀과 율동팀 공연, 한부모 선언 등으로 꾸며진다.

/연합뉴스

시청자미디어센터 스튜디오 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는 ‘스튜디오 프로그램’ 따라 잡기-가족뉴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좌는 오는 10월6일~28일(매주 토·일 오후 2시) 센터 부조성실 등에서 열린다. ‘뉴스 아이템 선정 및 구성안 작성’, ‘촬영교육 및 실습’ ‘스튜디오 녹화’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650-03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8일부터 올해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展

호남 신예작가 작품 한자리

김진화·진시영씨 등 4명 참여

호남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신세계 갤러리는 28일~10월8일까지 제10회 광주신세계 미술제 수상작가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대상 수상작가 김진화씨를 비롯해 김중수, 정 승, 진시영씨 등 광주와 전남·북 출신 작가 4명이 참가한다.

설치작가 김진화씨는 도시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구조를 폴라주 기법으로 형상화했다. 그는 현대인들의 삶의 단절과 분열,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를 새로운 조형언어로 조형한다.

작가 김중수씨는 ‘아름답지만 슬픈 현대인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다. 버스 승객들의 표정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투영하고 있다.

전북 정승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 승씨는 사물의 내면에 감춰진 형상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보여준다. 사물의 본디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진시영씨는 현대사회에서 상실돼 가는 삶의 존엄성을 비롯해 자연과의 단절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한 작품을 전시한다. 속도를 추구함으로써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들의 맹신을 풍자하기도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진화 작 ‘발에 쫓기는 남자와 거울 앞의 여인’

한편, 지난 1996년 시작된 광주신세계미술제는 2002년 5회 행사부터 지역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클래식의 향연

10월 3일 ‘소울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모임인 소울 스트링 앙상블의 두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는 10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다연씨 오인표씨

지난 3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소울 스트링 앙상블은 단원 개개인인 솔리스트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팀으로 이번 연주회에서는 창단연주회 때보다 좀 더 학구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곡 b장조 ‘알레그로’, 바르토크의 ‘디베르티멘토’, 요세프 슈크의 ‘현악앙상블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등이다. 박다연·조의진·김선성(제1바이올린), 오인표·강하라·박지수(제2바이올린), 박석윤·김주영(비올라), 김창현·최인영(첼로), 최지아(베이스)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과의 만남

‘황토제’ 연주회 10월 4일 광주문예회관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전미향)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 4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다채로운 국악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악장을 맡고 있는 김선제씨가 작곡한 거문고를 위한 ‘꿈을 향해 가는 길’을 비롯해, 해금을 위한 실내악 협주곡 ‘세상 풍경’, 양금과 가야금 2중주를 위한 ‘금강산의 노래’, 설장고를 위한 실내악 협주곡 ‘소나기’, 실내악 협주곡 ‘패지나 청정’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국악곡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999년 모임을 꾸린 황토제는 전통음악의 보존과 현대의 흐름에 맞는 국악 창작곡 연주를 하고 있는 그룹으로 30여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해 왔다. 문의 018-606-7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사랑' and '본 얼티메이텀'.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두 얼굴의 여친' and '인베이션'.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즐거운 인생' and '마이피더'.

씨너스전대 Cinears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본 얼티메이텀' and '인베이션'.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본 얼티메이텀' and '인베이션'.

제일시네마 Jeil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사랑' and '권태리의 귀가했다'.

